

# 대구주노

부활 제5주일  
생명 주일  
2012.5.6.(나해) | 제1780호



## 금주의 성화

###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포도나무의 열매로 빛은 포도주는 미사성제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피로 변한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한 몸이 되시어 우리도 당신처럼 베틀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다. 스테인드글라스 왼쪽 상단의 성작에는 수난을 뜻하는 가시관이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는 포도송이가 묘사되어 있다. 오른쪽에 그려진 새는 펠리컨으로, 자신의 살을 쪼아 피를 내어 새끼들을 먹고 있다. 펠리컨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새이다.

베벌리 쇼어-베넷, 1963.  
뉴질랜드 웰링턴  
성바오로대성당 스테인드글라스

## † 오늘의 전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 15,1-8 참조)

세례와 성체성사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치신 희생에 우리의 희생들을 합쳐 하느님 아버지께 제물로 바칩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은 그 자체로는 대단치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상 제사에 합쳐지면 세상에 생명을 주는 힘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바치는 희생이 바로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제1독서 사도 9,26-31

제2독서 1요한 3,18-24

복음 요한 15,1-8

화답송 ◎ 주님, 큰 모임에서 드리는 저의 찬양도 당신에게서 오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새로운 100년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디딤시다 • 5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 성경을 매일 읽읍시다.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손기철 베드로 다미아노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기조실장

생명은 순환이 잘 되어야 신이 납니다. 심장과 혈관 사이에 막힘없이 소통되어야 합니다. 소통되지 않고 막히거나 꺾어지면 생명은 어느덧 시들게 됩니다. 시들어가는 생명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특히 중한 병을 앓는 이들은 회복하여 다시 생명을 구하느냐, 아니면 악화되어 죽음을 맞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아이들이 몹시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뿌리내려야 할 이곳이 오히려 이들에게 차가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설계할 희망이 사그라지는 젊은이들의 고개가 숙여져 갑니다. 이웃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거친 언사를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는 사람들의 눈에 무례함이 가득합니다. 빨라지고 가벼워지고 욕망적인 환경을 만들어 오는 동안 아파하지 않아도 될 많은 이들의 마음과 마음이 막히고 꺾어지면서 생명존중의 문화가 어느덧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병을 앓는 이들은 누구나 혼돈과 고통, 절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병든 이들은 회복 기간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본의 아니게 휴식을 취하여 심신을 회복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달릴 수밖에 없는 이들이 심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들에게 싱싱하고 달콤한 생명열매를 맛보게 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생명을 탄생시키고 참하게 영글게 해서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아리따운 자녀로 만드는 일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자 우리 신자들의 도리입니다. 이를 위해 사시사철, 어디에서든지 예수님께서 생명의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계십니다. 이 생명나무를 돌보는 농부이신 하느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들은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는 열매 맺는 가지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 사랑 = 가장 아끼는 것을 주는 것

김정길 유스티노 | 대구예술대학교 총장

하느님은 여러 가지 베풀고 내주는 것 중에서 목숨을 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무거운 짐 보따리를 들고 가는 사람의 보따리를 함께 나누어 짊어지고 동행해 주는 것은 나의 육체적 능력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은 재물로써 사랑을 베푸는 것이란 뜻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든 내가 아끼고 있는 것이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나에게 얼마만큼 소중한 것이냐에 따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큰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작은 친절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랑은 그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기준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돈보다는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던 시절에는 사랑은 돈을 주는 것 보다는 나의 힘과 참견으로 약자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돈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빼앗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용돈을 위해 학급친구나 하급생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폭력적으로 짓밟아 빼앗고 귀한 목숨까지 잃게 합니다. 이처럼 물질이 ‘목숨의 가치’보다 앞서가는 듯한 혼돈의 시대에는 ‘돈을 내주는 나눔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 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되느냐’는 어지러운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는 돈만 나누어 주면 꽤 큰 사랑을 베풀었다고 자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돈을 나누는 베풀도 분명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아무리 물질이 목숨의 가치를 넘보는 시대라 해도 돈을 나누는 것만이 사랑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짐 보따리 하나 털어 주는 작은 사랑도 여전히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사랑은 크고 작은 무엇이나 나에게 소중한 것이면 베푸는 순간 사랑이 됩니다. 이 시대에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 있고 우리 집 현관 안에 있습니다. **가정**

5월의 신앙실천 캠페인 **신자라면 신자답게**

## 성경을 매일 읽읍시다!



현대인들은 매일 수없이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일을 위해서나 교양과 오락을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에 아무리 유익한 정보라도 하느님의 말씀처럼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하루에 다만 한두 줄이라도 읽거나, 쓰거나,

듣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예로니모 성인께서는 “성경에 대한 무지는 바로 예수님께 대한 무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 | 교구 비서실장

## 주일 말씀

###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제1독서의 사도행전에서 바르나바는 그리스도인의 적이었던 바오로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며 하느님은 농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예수님과 교회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한 부분인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줄 때 그리스도와 결합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

## 말씀과 교리

구원의 성사인 교회는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의 표징이며 도구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이 ‘불러 모음’(ek-kalein: 밖으로 부르다)이 바로 ‘교회 Ekklesia’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51, 760). 하느님께서서는 원조 아담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차자 성자를 보내시어 모든 사람을 하느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63).

목자이신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으뜸으로 하는 열두 제자와 양떼들을 불러 모아 완전한 하느님 나라가 이룩될 때까지 지속될 조직을 만드셨고, 하느님 나라의 새로운 행동양식과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기에, 그리스

도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하여 교회를 파견하십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64, 767).

이렇듯 하느님과 인간의 신비적 결합인 교회는 교계제도로 조직된 단체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비체이며, 볼 수 있는 집단이며 동시에 영적인 공동체이며, 지상교회이며 동시에 천상 은혜로 충만하며, 인간적 요소와 신적 요소로 합성되어 신앙으로만 알 수 있는 신비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71, 779).

교회는 이 세상의 구원의 성사이므로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의 표징이며 도구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사랑과 겸손과 극기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하느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68, 780).

## 말씀과 성사

교회는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의 실천

교회는 성체성사, 즉 우리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에서 탄생했습니다. 잠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만들어졌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꿰뚫린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에서 교회가 탄생하였음은 오묘한 신비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766). 따라서 교회는 창립자의 은혜를 받아 사랑과 겸손과 극기의 계명을 지키려고 충실히 노력해야 합니다(교회헌장 5항). 제5주일

## 묵상해 봅시다

“내가 바로 교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말일까요?

# 고해성사

## 고해성사 - 화해의 성사

고해성사는 달리 화해의 성사라고 불립니다. 고해성사는 세례 받은 신자가 다시 죄를 지어 하느님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린 경우 하느님께 용서를 받는 치유의 성사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능은 본래 하느님만이 가지신 권능이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에게 당신을 대신하여 신도들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요한 20,23).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받은 사도들은 자신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에게 그 권한을 물려주었고, 사제들은 주교에게 이 권한을 위임받아 고해성사를 집전합니다.

고해성사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사제 앞에서 자기 죄를 뉘우치는 신자의 고백과,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사제의 선고로 이루어집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죄 지은 신자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잃어버린 생명의 은총을 회복하고, 갓 세례를 받았을 때처럼 깨끗해집니다. 또한 고해성사는 죄를 용서받은 신자에게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유혹에 저항하는 힘도 길러 줍니다.

## 고해성사의 단계

고해성사를 올바르게 받기 위하여 필요한 단계(순서)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성찰, 통회, 정개, 고백, 보속의 다섯 가지입니다.

1) **성찰(省察)**: 지난번 고해한 후 다시 하느님께 용서받아야 할 모든 죄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대죄는 종류와 횟수를 가능한 정확히 알아내야 합니다.

2) **통회(痛悔)**: 통회는 죄를 지어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 드리고 형제자매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고해성사를 보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성사를 모독하게 됩니다.

3) **정개(定改)**: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범죄할 기회도 피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없다면 뉘우쳤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고해성사의 준비입니다.

4) **고백(告白)**: 준비가 되었으면 고해성사의 권한을 가진 사제 앞에서 성찰한 죄를 빠짐없이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와 훈계를 받습니다.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자신의 죄만 고백하며, 변명하거나 미화해서도 안 됩니다.

5) **보속(補贖)**: 사제는 우리 죄를 사해주시려고 고통을 받으신 예수님의 수난에 동참하라는 뜻으로, 또 죄의 경향과 맞서 싸우라는 뜻으로, 기도나 고행, 자선과 같은 보속을 정해 줍니다. 받은 보속은 가능한 대로 즉시 실행하여야 하고, 또 남에게 끼친 손해가 있다면 보상해야 합니다. 

## 오늘의 미사 • 부활 제5주일

【입당성가】 35 나는 포도나무요  
【제1독서】 사도 9,26-31  
【화답송】 ◎ 주님, 큰 모임에서 드리는  
저의 찬양도 당신에게서  
오나이다.  
【제2독서】 1요한 3,18-24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복음】 요한 15,1-8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  
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  
에 머무르는 사람은, 나도 그  
안에 머물러, 많은 열매를 맺으  
리라. 알렐루야.  
【성체성가】 163 생명의 성체여  
【파견성가】 244 성모의 성월



### † 재중국 교구사제 피정

북경, 산둥성, 상해, 광둥성, 홍콩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구대교구 신부 12명은 4월 16일(월)부터 19일(목)까지 한티순교성지 피정의 집에서 사제 연중피정을 실시하였다.

기사 및 사진제공 : 월간 <빛>



### † 본당 사무직원 성지순례

본당 사무직원 성지순례가 4월 16일(월)부터 17일(화)까지 있었다. 이번 성지순례에는 교구 사무처장 박석재(가롤로) 신부님과 본당 사무직원 70여명이 참석하여 전주교구 치명자산, 전동성당, 천호성지, 나바위성지 등을 순례하였다.

사진제공 : 본당 사무직원회

## † 금주의 주요 교구 일정

- ▶ 2012년 5월 6일(일) 15:00, 다문화가족 미사 - 계산주교좌성당, 교구장 대주교님 주례
- ▶ 2012년 5월 13일(일) 10:30, 건천성당, 산내성당 합동 견진 - 건천성당

## ■ 소중한 한마디를 들려주세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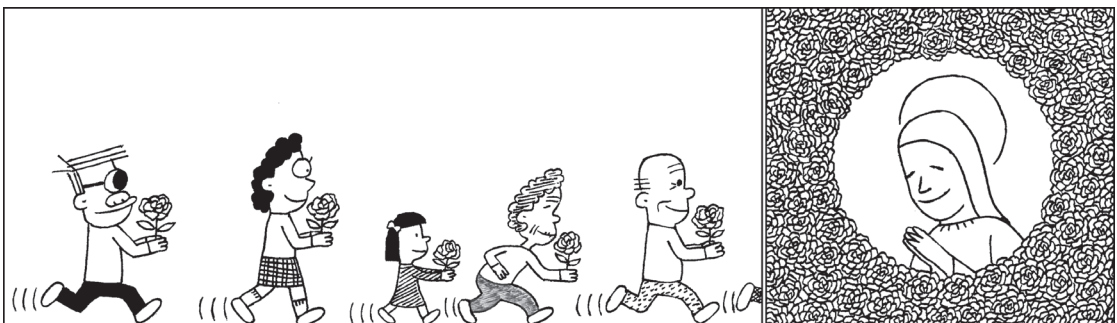
2012년부터 대구주보가 8면 컬러로 개편되었습니다. 더욱 세련되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보를 만들기 위해 형제 자매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 항목에 대한 소중한 한마디를 적어 보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1. 좋은 점    2. 나쁜 점    3. 주보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4. 기타 건의사항

- 메일: jubo@dgca.or.kr
- 우편: 700-443 대구시 중구 남산 3동 225-1번지 교구청 별관 403호 문화홍보실
- 주소와 소속 본당명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의 마음 모아모아서

박성규 엘리지오



## 성소 / 피정

###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성소모임

일자: 5.13(일)

장소: 서울 수녀회 본원

문의: (02)989-1882 / (010)3100-0820

###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성소모임

일자: 5.13(일) 14:00

장소: 부산 오륜대 본원

대상: 40세 미만 독신여성

문의: (051)582-4997 / (010)9113-4997

### 아씨시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성소모임

일자: 5.13(일) 14:00

장소: 부산 대연동 수도원 내

문의: (010)5313-0241

### 군중후원회 일일피정(회비: 3천 원)

일자: 5.14(월) 10:00~17:00, 교구청대강당

강사: 청주교구 이종섭(마태오)신부

문의: 군중후원회, 256-0815

구입: 후원회사무실, 본당지회장, 당일판매

###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피정

기간: 5.11~13 / 6.8~10(금~일)

장소: 성베네딕토왜관피정의집

지도: 최봉도 신부

대상: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문의: (010)5613-1762 / (054)971-0722

<http://innerheal.kr> 참조

### 예수의까리따스수녀회 기다에 피정

일자: 매월 넷째 주일 14:00

장소: 까리따스 젊음의 집

문의: (010)2568-5231

<http://cafe.daum.net/vocatio>

### 삼성산성령봉사회 2박3일 감사대피정

기간: 5.11(금)~13(일)

강사: 정원순(토마스) 신부 외

차량문의: (010)9065-5395

### 제주 성이시돌 피정

(미사, 말씀, 성지순례, 자연피정)

기간: 6.10~13, 17~20(일~수)

7.20~23, 27~30(금~월)

장소: 제주 성이시돌 목장 내

문의: 성이시돌 피정센터, (02)773-1455

### 가족 수도생활체험 피정

기간: 2차 6.23~24(토~일)

3차 9.15~16, 4차 10.6~7

장소: 왜관피정의집, 참가비: 4만5천원

문의: (054)971-0722(선착순 80명)

### 성 필립보 생태마을 8월 가족피정

기간: 1기 8.20(월)~22(수)(2박3일)

2기 8.22~24 / 3기 8.24~26

주제: 지구온난화, 참가비: 8만원(6식)

문의: (033)333-8066, [www.생태마을.org](http://www.생태마을.org)

## 모집 / 기타

### 마신부님 아일랜드영국·영어연수

초·중·고: 7.22~8.13(3주)

•유럽 학생들과 함께 연수

대·일반: 6.25~8.6(6. 7주, 장기)

주관: 마 신부님(아일랜드골롬반회)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 미사안내

|                     |                   |          |
|---------------------|-------------------|----------|
| 5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5월 7일(월) 오전 11시   | 인평성당     |
|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5월 7일(월) 오전 11시   | 성동성당     |
|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선교회 월례미사 | 5월 7일(월) 오전 11시   | 계산주교좌성당  |
|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회 미사     | 5월 7일(월) 오전 11시   | 포항죽도성당   |
| 꾸르실리스파 월례미사         | 5월 7일(월) 오후 7시30분 | 꾸르실로 교육관 |
| 지속적인 성체 조배회 월례미사    | 5월 7일(월) 오후 10시   | 한티순례자의집  |
|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 5월 12일(토) 오전 11시  | 성모당      |
| 떼제미사와 떼제기도          | 5월 12일(토) 오후 6시   | 삼덕성당     |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여기(바오로) 011-514-3855

**DACO**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안데스 호수소금**  
**동성약국** 현영희(아네스) 박준구(베드로)  
T.053-766-3815  
010-3295-4476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주교재단**  
**대레사소비선타**  
수익금 전액은 사회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청과·야채·선어·정육  
신선·가공식품·공산품·생필품  
생활·패션잡화·수입주방·수입가전  
765-1500 (어린이회관 맞은편)  
대표이사 장영일(그리신도)신부

**강남피아노사**  
중고피아노 고가 매입  
조율, 운반, 수리, 매매  
각종 악기 염가 판매  
☎ 010-3541-8194  
053)423-7009  
김 스테파노 (교우님 우대)

국내최초 **소아난치병 근본치료** 한의원  
**성모아이한의원**  
· 잦은 열감기/기침 · 비염/중이염  
· 간질/틱/ADHD/자폐 · 언어장애/보행장애  
· 야뇨증/성장장애 · 감기돌업  
“먹기 좋은 딸기맛 증류한약”  
한 의 학 박 사  
현 동국대 한의학과 교수 김 성 철(비오)  
☎ (053)592-1275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교우님우대할인)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길!  
**수성성당 연도실**  
교우 상 당하면 곧바로 연락주세요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016-518-2223 · 010-8345-9479  
이주석 (요셉)

## 행사 / 모임

###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절 미사

일시: 5.7(월) 19:00

장소: 2.28 공원

### 세계노동자의 날 기념 강연회

일시: 5.14(월) 19:00, 가톨릭근로자회관

강사: 김진숙 (한진중공업)

내용: 노동자의 삶과 한국노동운동의 전망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노동분과

(010)4817-1749

### 2012년 성령쇄신 춘계 대구대회

일시: 5.19(토) 10:00~18:00

장소: 성김대건기념관(남산동 대신학원)

강사: 김웅렬(토마스아퀴나스) 신부

대상: 일반

### 가톨릭전기기사사도회 성지순례

출발: 5.9(수) 7:30, 수성구민운동장

순례장소: 미리내 성지

## 교육 / 모집

### 상반기 부자녀캠프 신청

기간: 1차 5.12~13, 2차 5.26~27

(중·고등 자녀)

3차 6.9~10, 4차 6.23~24(초등 자녀)

장소: 명곡 가톨릭스카우트교육원

대상: 아버지와 자녀들

문의: 교구 청소년담당, 250-3064

### 22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안내

기간: 6.9~(5주간, 매주 토) 15:00~21:00

장소: 교구청 별관1층 대회의실

대상: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둔 모든 아버지

신청마감: 6.1(금), 신청비: 15만 원

문의: 641-5678

### 가톨릭사진가회 무료 사진 강좌

일시: 매주 목요일 19:00(6주간 예정)

문의: (010)3509-8991(선착순 50명)

### 대구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기간: 7.19(목)~8.18(토), 380만 원

대상: 초4~중3, 선착순 40명

설명회개최: 6.2(토) 15:00

문의: 656-6655 (ARS 4번)

•제12회 성인 해외봉사어학연수모집중

### 가톨릭문화관교육생모집(476-6211)

통기타, 바이올린, 플룻, POP, 초코아

트, 롤페인팅, 천연비누·천연화장품

### 12학년도 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입생모집(석사, 박사)

접수기간: 4.30(월)~5.11(금)

문의: 850-3584, 3637(<http://www.cu.ac.kr>)

### 12학년도 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계절제) 신입생모집

접수기간: 4.30(월)~5.11(금)

분야: 22개 전공, 교원자격증 발급

<http://edu.cu.ac.kr> 모집요강 참조

### 12학년도 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특수

대학원 신입생모집(석사, 야간, 2년제)

접수기간: 4.30(월)~5.11(금)

경영, 디자인, 신학, 보건과학대학원,

사회복지, 국제·다문화, 음악대학원

문의: 660-5512 (<http://www.cu.ac.kr>)

###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 모집

기간: 5.7(월)~25(금)

모집: 회화, 도시환경조각, 그리스

도교미술,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전시디자인, 문화예술기획

문의: [www.iccu.ac.kr](http://www.iccu.ac.kr)

### 분도출판사 대구매장(삼덕성당 점)

신앙서적, 미디어, 성미술 작품

수도자들이 직접 제작한

성물과 정통 독일식 소시지(순대)

개장: 12:00(주일 10:00)~20:00

문의: 252-9889

## 채용

### 대구정신병원 간호사 모집

마감: 5.11(금)

문의: 총무과, 630-3001

### 가톨릭호출택시 직원 및 회원 모집

문의: 김중배, (010)3940-7358

•재택근무 가능, 장애교우 환영

## 안내

### 교구법원 공시(253-9550)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

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황순애(소피아), 신은숙, 양숙희(아네스)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2년 대상자

문의: 650-4591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 발견에 좋습니다

혼수품 우대 · 이불 개조 · 기숙사 이불  
손수비전문 Angela  
The bedding Gallery **안젤라 침장**  
월배 친견의 사거리 신한은행 맞은 편  
**T. (053)642-5191**  
김성길(요 쉼) 017-531-5191  
박광희(테레사) 017-532-5191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전편  
**T.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한결같은의원**  
가정의학과 / 소아과 / 피부과 / 내과  
레이저클리닉 / 보톡스 / 필러  
**053)965-1441**  
반야월 이마트내 2층·원장 문세민 스테파노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흥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술전문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약령시사람들**  
탈모 방지 양모 경옥생 삼푸 & 토닉  
경옥고차, 음료, 경옥고추장, 된장, 간장(신제품)  
3대를 이어온 경옥 명가(약령한, 경옥활력소)  
대표 양대석(안토니오), 임영주(모니카)  
**T. 1644-8807, (053)428-8002**  
+ 교우님 특별우대 판매

**BICHE**  
Organic Restaurant  
1F 근거리 유기농 농산물 직거래 매장 비채  
2F 유기농 레스토랑 비채 **T. 744-2720**  
3F 몸과 문화 건강문화센터  
4F 온열치유센터  
**T. (053)256-5493**